

로마서 7 장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로움

전반부 5:12-21 6 장 7 장 8:1-13 8:14-39 후반부

죄 hamartia	4	<u>6</u>	<u>16</u>	<u>15</u>	<u>5</u>	0	2
사망 thanatos	2	<u>5</u>	<u>7</u>	<u>5</u>	2	1	0
율법 nomos	<u>33</u>	3	2	<u>23</u>	5	0	6
육체 sarx/soma	6	0	3	<u>5</u>	<u>14</u>	1	8

루터는 7 장에 관하여 그의 서론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여서 그들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에 문제가 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킬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결국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없게 된다. 바로 그런 진정함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그 것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고후 3:14).

7:1-7:6. 죽음으로서 율법으로 부터 벗어남

7:1-7:3.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갈 2: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신 24:1-4 이혼을 할 권리가 남자에게만 있음, Shammaites

*당시 로마법은 서로 동의하에 이혼이 가능하였고, 또한 남편이 죽고 12개월이 지난 후 결혼을 하여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남편의 법: 아내를 매고 있는 법과 사람을 속박하는 율법을 대비

*음녀라는 것은 그 댓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내포 신 17:5, 요 8:5

*구속하고 있는 관계가 죽음으로 끊어지면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
*6 장에서는 죽음은 죄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설명하고(롬 6:9-10)
7 장에서는 죽음이 율법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 장에서 죄의 관계로 설명하였듯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는 율법으로 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으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로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참고:골 1: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7:5-7:6.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체에 있다:en te sarki 거듭나지 않은 상태 old age:죄, 율법, 사망

*3:20 절: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4:15 절: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노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5:20 절: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7:5 절: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pathemata ton hamartion:1)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욕망 Bultmann
2)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마음 Luther

*비교:고후 3: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 grammatos 은 죽이는 것이요 영 pneumatos 은 살리는 것이니라

*갈 3:23-24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paidagogos)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7:5 절의 육체에 있을 때로 시작하는 구절에 대한 설명은 7:7-25 절에
7:6 절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구절에 대한 설명은 8:1-17 절에

7:7-7:13.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이나 생명을 주지 못한다

7:7-7:8.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은 탐내는(아무것이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 것이 죄인줄
모른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금하기 때문에 죄인 것을 알았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게 하지만 자체가 죄가 아니다

*탐심 epithymia: 사욕은 자신을 위한 것 6:12, 하나님을 멀리함 1:21

*내 속의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탐심이 생겼다

예: 금지된 것을 더 하고 싶은 호기심, 속도 위반, 가지고 싶은 욕망

*제한 속도가 없는 곳에서는 속도 위반이 없다=죄가 죽은 것

7:9-7:11.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koris nomou = 율법이 없을 때 비교 7:8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죄인이 되었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고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은 구약 전부를 의미하고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십 계명의
열 번째를 의미하며 그 한 계명을 예를 들어 죄와의 관계를 설명

*Dunn 은 이 구절을 유대인이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율법이 그들에게 죄를 더 알게 하는 것이라는 반론으로 설명

*창 2:17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계명과 죽음)

*율법이 없을때-죄는 죽었고(효력이 없고)-나는 살았다

율법이 이르매-죄는 살아나고(효력이 있고)-나는 죽었다 참고 5:13

7:12-7:13.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me genoito!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속에 들어 있다
*죄는 나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 죄가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도록 만듦으로써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의미

7:14-7:25. 율법의 한계와 인간의 내적 갈등

7: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pneumatikos)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sarkinos) 죄 아래에 팔렸도다

7:15-7:17.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비교 7:18 나의 육신에 (en sarki mou) 선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율법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만 그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이끌려 마음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선한 것을 원하나 바르게 행하지 못함을 설명하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잘못이 모두 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죄성을 따라서 죄를 범한 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비교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비교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7:18-7:20.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7:15-7:17 과 7:18-7:20 은 반복된 내용으로 운율이 있는 시적 표현

7:21-7:23. 그러므로 내가 한 법(ton nomon)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Dunn 율법의 두 가지 면과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대비하여 설명

즉 하나님의 법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나(속사람 7:22)와

죄에 이끌린 법으로 인하여 (7:8 절 참조) 죄만 일삼는 나를 대비

*율법은 선한 길을 제시하지만 그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다

*속사람 eso anthropos: 동물과 다른 이성적인 인간 (희랍 철학 용어)

여기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회심한 사람을 의한다

*하나님의 법=내 마음의 법=마음으로, 한 다른 법=죄의 법=육신으로

7:24-7:2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고: 고후 4:16-5:4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 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죄성으로 인하여 탐심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율법을 어기는 과거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해결책은 8장에서

-law in its office: 율법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함. 인간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함에 이른다-Calvin
-law as rule of life: 그리스도인은 (율법 중) 윤리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나 정죄함에 이르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상관성이 있다 즉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좋다는 의미. Puritans, Melancthon, Wesley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임 과 동시에 죄인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나 죄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Luther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믿음은 있으나 아직 reborn 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회심하기 전으로 부터 halfway 에 와 있는 사람을 말한다-Wesley

*회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

- 육신에 속해 있다 v5, v14, v18, v25
- 나 자신이 성령의 도움없이 혼자서 고통받고 있다 v25
- 나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 v14: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v6:2,6,11,18-22
- 여기서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듯 하다: 믿는 자는 율법으로 부터 자유로와 진다 6:14,7:4-6

*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나는 바울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것이다 v14-24
- 오직 회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v22, 순종하려고 하며 v15-20, 섬길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v25
- 내 속사람 v22 과 내 마음으로는 v25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을 보면 회심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v25

7:24 절에 나타난 나는 누구인가

1. 바울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것: Origen, Bruce, Dunn
2. 아담(에 속한 사람)의 경험: Kasemann, Longenecker
3. 이스라엘 민족: Chrysostom, Moo
4.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사람: Kummer, Bornkamm, Fitzmyer

1.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7:9
바울이 13 세 Bar mitzbah 이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전 창 2:17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전해 주기 전
예수를 주로 믿고 회심 하기 전
2.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7:14
회심은 하였으나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내면의 죄성과의 갈등
아담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이 됨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예수를 주로 믿었으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